

EPS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해 매진 농수산물 상자 재활용 홍보 강화 및 EPR 조기 정착 위해 노력



황 규 익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회장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는 지난 2월 23일 홀리데이 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황규익 신호유화(주) 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황규익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이후 대한전선을 거쳐 신호유화(주)에 입사, 대표이사 전무로 재직했으며 한국타포린(주) 대표이사

를 거쳐 다시 신호유화(주)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다.

그는 발포스티렌(EPS)에 대해 “EPS는 유용성이나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어느 타제품보다도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는 소재”라며 “스티로폴은 재활용하면 재생수지 뿐만 아니라 욕실발판, 사진액자,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회장은 종이와 비교하여 EPS의 원천적인 면을 강조하며 그 우수성을 부각했다.

“종이는 유한된 자원(목재펄프)을 이용하여 원료를 만드는 반면 EPS는 석유화학원료를 원재료로 각종 생물로부터 생긴 화학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환경적인 면에서 훼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구 유한 자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환경사랑의 원료입니다”

94년 21%에 불과하던 스티로폴 재활용률은 지난해 59.2%를 기록, 금년에는 60%를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종이 재활용율(약 63%)와의 수치와 비슷한 기록으로 스티로폴 포장재가 더 이상 쓰레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재활용된 스티로폴을 용도별로 보면 재생수지 26,432톤(90.1%), 경량폴 1,964톤(6.7%), 섬유코팅제로 940톤(3.2%)이 재활용 됐다.

황 회장은 “협회는 시민들과 사업장에서의 분리배출로부터 재생원료 생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애로점을 풀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수산물 상자의 재활용 홍보 강화 및 발포합성수지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EPR제도의 확산을 위해 의무 생산자의 공제조합 참여 확대, 재활용 기술과 새로운 재활용용도 개발, 재활용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는 농수산물 상자의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같이 스티로폴과 재질이 같은 PS스티커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산물 상자의 경우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PS스티커를 사용하면 수산물 출하자에게 스티커 한장 당 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상자와 택배용상자에 부착되는 생산자 및 원산지 표시스티커가 재활용되는 상자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로폴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때까지 대

기오염, 수질오염, 에너지 소비 등에 있어서는 종이 포장재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황 회장은 스티로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티로폴 사용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환경오염 문제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등을 통해서 어느 제품이 지구 환경에 더 많은 부하를 주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피가 크고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로폴이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는 단순한 논리는 재고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가 창립될 당시 스티로폴이 재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60%를 육박하는 재활용율을 보이며 EPS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눈에 보이는 오해로 인해 EPS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협회는 스티로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바꾸기 위해 시민단체와 학생 등을 상대로 재활용업체 현지견학을 추진하고 여론형성층 공감대를 확대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EPS재료를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황 회장.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협회 회장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ko

이한일 기자